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45

나오미와

룻

(룻기 1:1~18)

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.

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.  
비옥했던 땅이 말라서 짹짹 갈라지고  
탐스럽게 익어가야 할 곡식도 충분하지 않았죠.

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 
‘엘리멜렉’과 ‘나오미’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.  
두 사람에겐 ‘말론’과 ‘기론’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.  
하루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.

**“여보, 여기 베들레헴에서는  
도저히 버틸 수가 없구려.  
듣자하니 이웃나라 ‘모압’은  
곡식 사정이 여기보다 낫다고 하오.  
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시다.”**

**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에서 살게 됐어요.  
확실히 모압에서는 전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 
대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.**

**그들은 ‘그모스’라는 얼굴은 황소의 모습이고  
몸은 사람의 모습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.**



하지만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.  
다른 나라 사람들과  
지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죠.

세월이 흘러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어요.  
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게 되었고  
또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 
결혼을 하게 되었죠.

두 여인의 이름은 ‘오르바’와 ‘룯’이었는데  
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긴 했지만  
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을 존중해주었어요.

특히 룯은, 남편을 따라서  
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죠.

**“저의 민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 
이제 저는 당신 덕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.  
앞으로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길 거예요.”**

룯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.

그런데 한동안 평안했던 나오미 가족에게  
시련이 찾아왔어요!  
나오미의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거죠.

남편에 이어, 두 아들들까지 떠나보낸  
나오미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.  
각자 남편을 잃게 된 오르바와 룯도 많이 슬펐지만  
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 
보살피고 위로해 주었죠.

그러던 어느날, 늘 울적해하던 나오미가  
모처럼 밝은 목소리로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.

“얘들아. 내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들었구나.  
내 고향 베들레헴에 올하는 아주 풍년이 들었다는구나.”



**“얘들아. 사실 나는, 고향이 많이 그리핀다.  
그곳엔 내 친구들도, 친척들도 살고 있거든.  
이제 가뭄 걱정을 안 해도 된다하니  
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.”**

오르바와 룯은 살짝 놀랐지만  
오랜만에 기운이 생긴 나오미를 보자  
다행스런 마음이 들었어요.  
시어머니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죠.  
그래서 세 사람은 짐을 싸서  
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.

그런데 길을 가는 와중에도 나오미의 마음은  
편치 않았어요.

**‘이 아이들에겐 여기 모압이 고향이자 집인데...  
늙은 나 때문에 남편도 없이  
먼 길을 떠나고 있구나... 너무 안 됐어...’**

결국 나오미가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말했죠.

**“오르바야, 룯아. 너희는 이만 여기서  
너희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.”**



**“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고  
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무나  
이미 그동안 너희들은 나를 충분히  
잘 보살펴 주었단다.”**

나오미의 갑작스런 말에  
두 사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 
오르바와 룯이 한 목소리로 말했죠.

**“어머니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.  
그 먼 길을 어찌 혼자 떠나려 하시나요..  
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. 흑흑...**

**“그럼요,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니.  
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 
어머니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... 흑흑..”**

**그러자 나오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.**

**“그만 하거라. 너희는 여전히 젊지 않니.  
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에는  
너희의 고향 모압이 훨씬 나을게다.  
어서 친절으로 돌아가거라.  
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한단다.”**

오르바와 룯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.  
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.  
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 
작별의 입맞춤을 한 뒤 모압으로 돌아갔어요.

그런데 룯은 달랐어요!  
룰은 나오미에게 매달려서는 돌아갈 줄을 몰랐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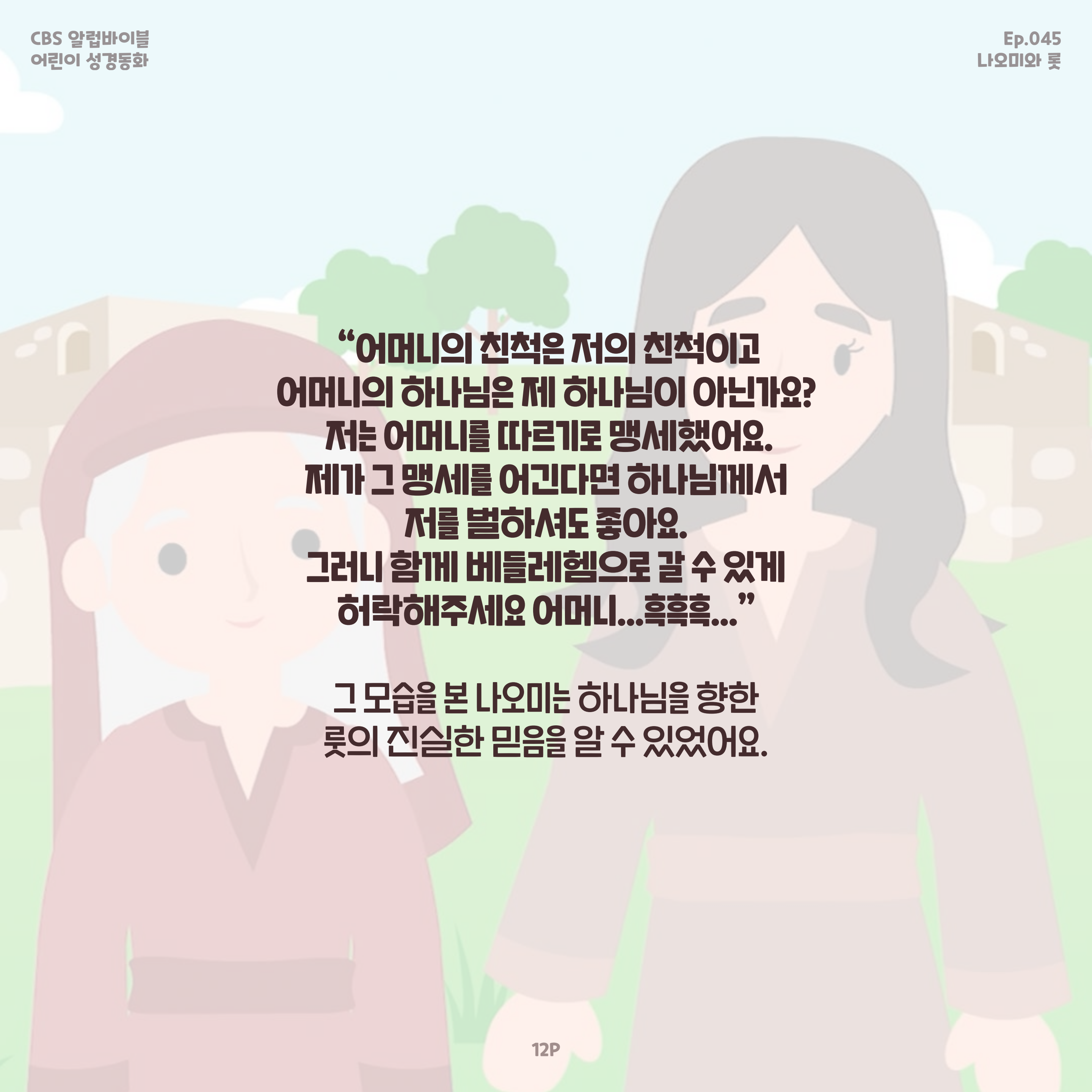
“아니 애가. 룯아, 내 말 잘 듣거라.  
너의 동서 오르바라고 마음이 편했겠느냐.  
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갔잖니.  
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멀어지기 전에  
어서 오르바를 따라가거라.”



여러분, 롯도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 
익숙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훨씬 풍족하게  
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.

하지만 롯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.  
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 
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!

“어머니... 더 이상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.  
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이고  
앞으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입니다.”

An illustration of two women, Naomi and Ruth, standing in a green field. Naomi, on the left, has long reddish-brown hair and is wearing a reddish-brown robe. Ruth, on the right, has long grey hair and is wearing a grey robe. In the background, there are stylized green trees and tan-colored houses under a light blue sky with white clouds.

**“어머니의 친척은 저의 친척이고  
어머니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닌가요?  
저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맹세했어요.  
제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 
저를 벌하셔도 좋아요.  
그러니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 
허락해주세요 어머니...흑흑흑...”**

**그 모습을 본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 
롯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었어요.**

그래서 더 이상은, 룯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.  
결국 두 사람은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따뜻한 마음을  
느끼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!

하나님을 섬기는 모압의 여인 ‘룯’.  
과연 낯선 곳에서 나오미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?